

경도정신지체학생 주변 집단의 인식변화를 위한 자기모델링비디오의 효과성 검증

Self-Modeling Video Effect Verification for Change in Perception of Mildly Mentally Retarded Student Peripheral Groups

김성현, 전병호
공주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

Sung-Hyun Kim(image509@hanmail.net), Byeong-Ho Jeon(bhjeon@kongju.ac.kr)

요약

중학교 생활에서 경도정신지체학생의 따돌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영상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 일반학생들의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동영상콘텐츠의 제작에 직접 출연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인식변화가 있었으며 제작자의 의도가 심도 있게 실린 장면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지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기모델링비디오를 통한 학생 생활지도는 효과적이며 특히 제작자의 뚜렷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자기모델링비디오는 학생들의 행동과 인식변화에 효과적이다.

■ 중심어 : | 자기모델링비디오 | 경도정신지체학생 | 따돌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group bully phenomenon of mildly mentally retarded(MR) students in middle schools. Video digital content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class. As a result, the normal students' perception of MR students has improved drastically. Especially in the case of students who appeared in the film; their perception has changed a lot more than the students who didn't. Also, the students showed a tendency to recognize the scenes that were produced intentionally by the researcher. In conclusion, it is effective to alter a student's attitude through the self-modeling video contents. Particularly, the self-modeling video contents that made by researcher's precise educational goal are more effective on the alteration of the students' perception and behaviors.

■ keyword : | Self-Modeling Video | MR Students | Group Bully Phenomenon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학생들로 인한 교육적 문제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아이들에 대한 따돌림 문제는 최근에 들어와서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들의 성향이 대단히 개인주의로

*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스타프로젝트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70730-001

접수일자 : 2007년 07월 30일

심사완료일 : 2007년 09월 03일

교신저자 : 김성현, e-mail : image509@hanmail.net

되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이 되어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또래들에게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당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학교교육에서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실시되고 있다.

Cole은 통합교육의 성공요인으로 아동요인, 또래요인, 교사와 교수적 요인, 행정적 요인, 부모와 지역사회의 태도 등 다섯 가지 요인을 들고 있는데 그 중 또래요인 중 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의 태도와 장애 아동에게 적응하고자 하는 일반 아동의 자발성을 들고 있다[1]. 통합 교육의 성패는 장애 아동에 대한 또래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일반 아동들은 대체로 장애아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갖는데 이것의 근원은 장애아들의 언어, 적응양식, 사회적 행동, 대인관계의 미숙, 인지기능의 미숙 등의 원인 때문이다[2].

일반아동의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제한적이고 잘못된 정보, 장애인과의 접촉결여 혹은 계획적이지 못한 접촉, 부적절한 행동의 모델링 혹은 적절한 행동의 무시,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 강조에 무관심한 학교의 태도에 기인한다. 그러나 일반아동이 장애 아동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과 태도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학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통합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정도도 증가할 수 있다[3].

장애아들 중에서도 특히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변화는 현장에서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경도정신지체학생의 경우 첫째 외모상으로 전혀 장애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며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셋째 학교의 교육과정 중 몇몇 교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경도정신지체학생은 일반학생들로부터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이해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오히

려 거의 대부분 적극적인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에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도정신지체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II. 연구 배경 및 설계

1. 배경

지금까지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재 방법들이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 직접경험, 사회적집단을 들기도 하고 장애아동과의 직접접촉,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 모의 장애체험, 토의 등 크게 직접체험과 간접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 더욱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신동근(2003)은 장애 관련 TV방영 프로그램 활용이 일반 아동의 장애 이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4] 김성자(2000)는 장애아동에 관한 영상자료의 활용이 초등학교 아동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장애관련 비디오 시청 횟수가 많을수록 초등학교 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5].

위의 여러 가지 연구에서 영상물은 일반아동의 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자기모델링비디오(Self-modeling Video)는 비디오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비디오를 이용한 관찰적 교수방법은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형태로 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중재에서 효과를 보인다.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기법은 비디오카메라의 보급

과 함께 1960년대에 주로 정신질환자들의 다양한 행동들에 적용되어 그 효과가 연구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가정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될 수록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6].

이러한 비디오 자기모델링은 경도정신지체아 자신에 대한 행동변화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도정신지체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아동의 행동변화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2. 연구목적

비디오 영상물을 통한 일반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서는 일반학생들로부터 이해받기 어려운 경도정신지체학생과 그 학생의 주변집단을 모델로 하여 동영상 제작하고 그것을 연구대상학교에 적용한 후 자기모델링비디오가 일반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교현장에서 자기모델링비디오 기법으로 경도정신지체장애학생과 그 주변집단학생을 지도하여 일반학생이 경도정신지체학생을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이해하고 경도정신지체학생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가설

- 1) 동영상콘텐츠는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개선에 효과적이다.
- 2) 비디오자기모델링 동영상콘텐츠는 자신이 출연하지 않은 동영상콘텐츠보다 효과적이다.
- 3) 감성적인 내용의 동영상은 지적인 내용의 동영상보다 의미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3.2 연구대상

- A 중학교 : 시지역 중학교 1학년 35명
- B 중학교 : 면지역 중학교 2학년 23명
- C 중학교 : 면지역 중학교 3학년 22명

위의 조사 대상 학급학생들은 사전 조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학급에 경도정신지체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두 남, 녀 혼합비율이 비슷한 혼성학급이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3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경도정신지체학생이 통합된 중학교 3학년 학급에서, 일반학생들이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하였을 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모델링비디오를 제작하기로 계획하고 경도정신지체학생과 일반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C 중학교 3학년 한 학급을 출연진으로 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자기모델링비디오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연자들을 섭외하였으며 가정용비디오 카메라로 영상물제작에 필요한 장면들을 촬영하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프리미어로 편집하여 영상물을 완성하였다.

제작된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A, B, C학교 학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고 동영상을 보여 준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에 출연한 당해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두 학교의 학급을 대상으로도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다른 두 학교는 위의 연구대상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하여 얻은 결과를 본문의 내용으로 하였다.

III. 동영상 “혼자인 아이” 분석

1. 시놉시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은 중학교에서 경도정신지체학생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도정신지체학생을 괴롭히는 일반학생들의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경도정신지체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본 영상물의 출연자들은 제작자가 담당하고 있는 경도정신지체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학생들이며 동시에 연구 대상자이다. 본 영상물에 출연하는 혜영(가명)이라는 학생은 선천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경도정신지체학생이다. 혜영이는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혜영이는 주위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2. 동영상콘텐츠의 시퀀스별 상세분석

scene	cut	영상내용	촬영 기법	촬영의도
#1 학교	1	학교 본관 건물	줌	학교라는 공간을 단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 교훈탑	틸트	학교에서 경험해야 할 상황을 교훈탑을 통해 나타냄
#2 즐거운 아이들 속의 외톨이	1	3학년 교실 표시판	로우 앵글	현장이 3학년 교실이라는 것을 보여줌
	2	남, 여 학생들이 어울려 즐겁게 지내는 모습	고정샷	교실이 학생들에게 즐거운 공간임을 표현
	3	홀로 운동장을 바라보는 혜영	미디엄샷, 고정샷	홀로된 아이의 쓸쓸함을 표현
	4	친구들과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	미디엄샷, 고정샷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3 외톨이 아이	1	도서관 컴퓨터와 놓고 있는 혜영	미디엄샷, 카메라워킹	혼자인 학생이 학교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일상을 이해하도록 함
	2	식사시간의 아이들	플샷 고정샷	식당에서도 혼자인 쓸쓸함을 표현
#4 혜영이네 집	1	혜영이네 집 풍경	줌	혜영이의 가정환경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함
	2	혜영이 아빠와 엄마	몰래카메라	혜영이의 부모가 혜영이를 이해하지도, 도와주지도 못함을 표현
#5 혜영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1	여자 아이들의 생각	고정샷	혜영이의 행동특성을 짐작하게 함
	2	남자 아이들의 생각	고정샷	혜영이의 문제 있는 언어능력을 짐작하게 함
#6 혜영이의 상태	1	혜영이의 학교 생활(수업시간)	줌	혜영이의 건지기 힘든 학교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필기를 하는 혜영이 모습	하이앵글, 줌	쓰기 능력을 통하여 경도정신지체아임을 알 수 있음
#7 전문가 진단	1	전문가의 분석	바스트샷	특수교육 전문가의 진단

#8 마무리	1	문자 스크롤 (작자미상 사)	장애아의 부모심정을 시로 표현, 감동을 자아내기 위함
--------	---	-----------------	-------------------------------

3. 설문조사 분석

3.1 동영상콘텐츠에 의한 인식변화효과

동영상콘텐츠가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일반학생의 인식변화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1> 나는 학급의 경도정신지체 학생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

위와 같은 설문에 대하여 제작된 동영상을 투여하기 전과 후의 A, B, C중학교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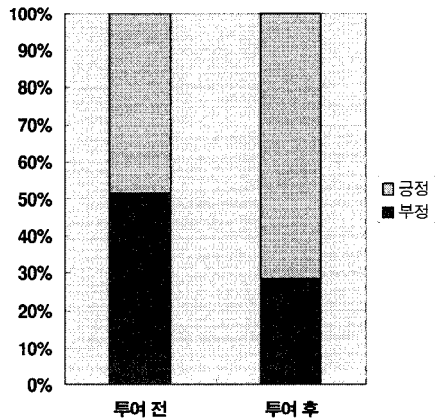


그림 1. A중학교 설문결과

A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동영상을 투여하기 전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8.6%로 나타났고, 동영상을 투여하고 난 후 긍정적인 답변이 71.4%로 나타났다.

B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동영상을 투여하기 전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52.2%로 나타났고, 동영상을 투여하고 난 후 긍정적인 답변이 73.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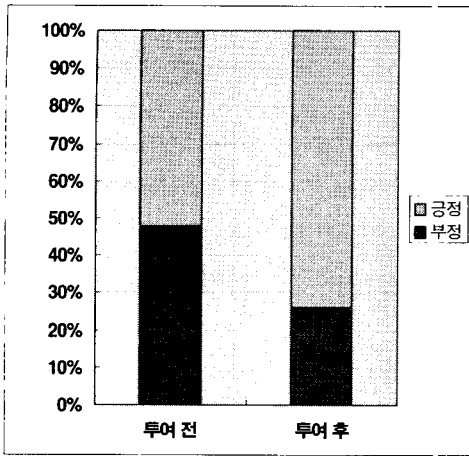


그림 2. B중학교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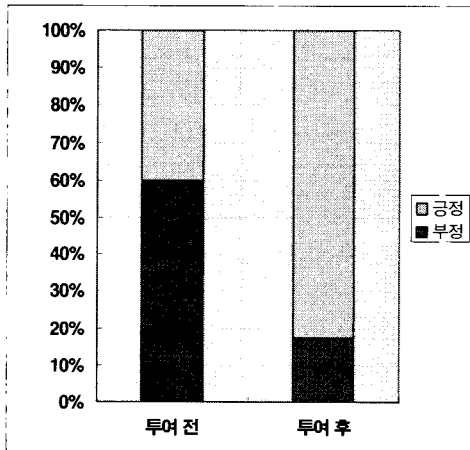


그림 3. C중학교 설문결과

C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동영상 투여하기 전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40%로 나타났고, 동영상을 투여하고 난 후 긍정적인 답변이 82.6%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분명한 대조를 위해 설문응답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하여 그림을 작성하였다.

설문응답항목 '1'의 가중치를 5로, '2'의 가중치를 3으로, '3'의 가중치를 '1'로, '4'의 가중치를 -1, '5'의 가중치를 -3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인식변화지수(E)를 산출하는 공식은

$$E = \sum_{i=1}^5 f(i) \times (7 - 2i) \quad (1)$$

이 산출공식에 따른 결과로 [그림 5]와 같이 A 중학교의 인식변화지수는 '-1'에서 '19'로 변화하였다. B 중학교의 인식변화지수는 '-1'에서 '15'로 변화하였다. C 중학교의 인식변화지수는 '-8'에서 '17'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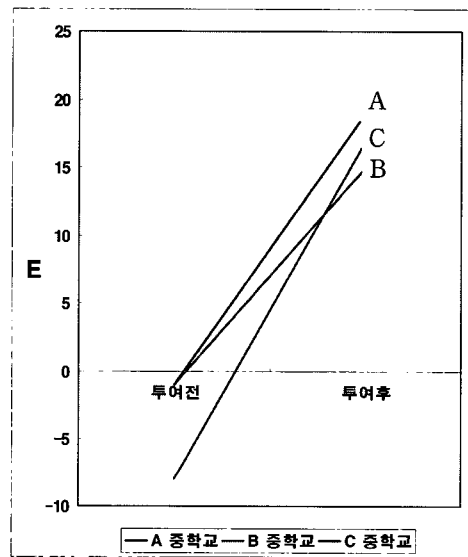


그림 4. A, B, C중학교 설문결과 긍정적 답변의 변화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A, B, C 학교에서 동영상 투여 전보다 투여 후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그림 4]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위 조사비교에서 A, B중학교 보다 C중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적인 동영상의 의미전달효과

지적인 동영상(전문가의 설명으로 구성된)의 의미전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2> 동영상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정도정신지체학생을 이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설문에 대하여 A, B, C중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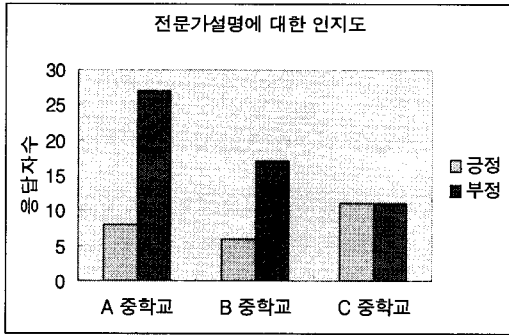


그림 5.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답변비교

긍정적 응답이 A중학교 23%, B중학교 26%, C중학교 50%로 영상의 의미전달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감성적인 동영상의 의미전달효과

감성적인 동영상(작자미상의 시로 구성된)의 의미전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3> 작자미상의 시를 읽고 경도정신지체학생의 부모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설문에 대하여 A, B, C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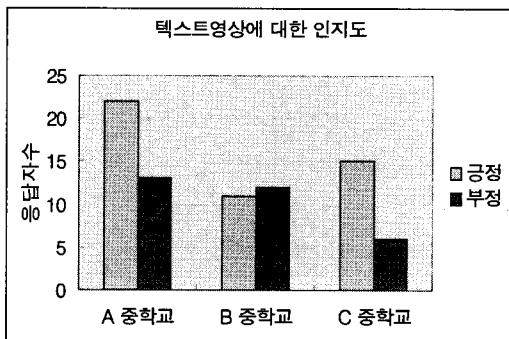


그림 6. 텍스트영상에 대한 답변비교

긍정적 응답이 A중학교 63%, B중학교 47%, C중학교 71%로 텍스트영상의 의미전달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토

1. 동영상콘텐츠에 의한 인식변화효과

<설문1>에서 A중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답변은 동영상투여 전 53.1%에서 투여 후 78.1%로 20%증가하였고, B중학교의 경우는 52.2%에서 73.9%로 21.7%증가하였으며, C중학교의 경우는 40%에서 82.6%로 4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A중학교의 인식변화지수(E)는 -1에서 19로 18만큼 증가하였고 B중학교의 경우는 -1에서 15로 16만큼 증가하였고 C중학교의 경우는 -8에서 17로 25만큼 증가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동영상투여전, 후 경도정신지체 주변학생들의 생각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영상을 통하여 경도정신지체 주변학생들은 학급의 경도정신지체학생이 보호해 주어야 하는 대상임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감성적인 호소문에 의해 문제의 학생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콘텐츠는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적인동영상과 감성적인동영상의 의미전달 효과 비교

<설문2>동영상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경도정신지체학생을 이해하게 되었다. 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검토해 보면 A중학교 23%, B중학교 26%, C중학교 50%로 나타났고, <설문3>작자미상의 시를 읽고 경도정신지체학생의 부모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검토해 보면 A중학교 63%, B중학교 47%, C중학교 71%로 나타났다.

표 1. 설문2와 설문3에 대한 긍정적답변의 비교

학교	지적인 동영상에 대한 긍정적 답변비율	감성적인 동영상에 대한 긍정적 답변비율	비교
A	23%	63%	40%
B	26%	47%	21%
C	50%	71%	21%

위에서 나타난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의 설명으로 구성된 감성적인 동영상(작자미상의 시로 구성된 텍스트)에 의한 학생들의 생각변화는 지적인 동영상(특수교육전문가의 설명으로 구성된)에 의한 생각변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감성적인 동영상의 경우가 지적인 동영상(전문가의 설명으로 이루어진)보다 의미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모델링비디오의 의미전달효과

<설문1>에서 동영상을 보여 준 후 긍정적인 답변의 증가 정도가 A, B중학교 학생들보다 동영상제작에 직접 출연한 C중학교학생들이 현저히 높은(인식변화지수(E) : A중학교 18, B중학교 16, C중학교 25)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3>의 결과에서 설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동영상제작에 직접 출연한 C중학교(71%)가 A(63%), B(47%)중학교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A, B중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육용 동영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C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영상물에 직접출연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한 호감도와 집중력이 높아져서 동영상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경도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생각변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자기모델링비디오를 통한 학생들의 지도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경도정신지체학생이 통합된 학급에서 일반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장애학생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도의 지체상태를 놀림감의 대상으로 하여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도정신지체학생의 학교생활과 경도정신지체학생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일반학생들에게 보여준 결과 일반학생이 경도정신지체학생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도정신지체학생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경도정신지체학생 주변학생들의 생각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학습도구로 동영상은 효과적이다.

또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동영상은 전문가의 설명이나 연기자의 출연등과 같은 지적인 동영상보다 어떤 특정한 경우의 의미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특별한 의도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할 대상의 학생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동영상(자기모델링비디오)은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자기모델링비디오는 경도정신지체학생과 일반학생의 중재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생활지도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자기모델링비디오를 제작하는 일은 다음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자기모델링비디오에 출연하는 학생을 섭외하기가 어렵다. 둘째, 동영상을 촬영, 편집하는 과정이 교사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기모델링기법을 통한 학생생활지도는 교사들의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1] D. A. Cole and L. H. Mayer, "Social Integration and Severe Disabilities: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ild Outcomes," Jour of Special

education, Vol.25, No.3, pp.504-513, 1991.

- [2] 김광웅, *정신지체유아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90.
- [3] D. W. Johnson and R. T. Johnson, "Classroom Learning structure and attitudes toward handicapped students in mainstream seying," In R. L. Jones (Ed.), *Attitudes change in special education*,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pp.119-142, 1984.
- [4] 신동근, *장애관련 TV 방영 프로그램 활용이 일반 아동의 장애이해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003.
- [5] 김성자, *장애아동에 관한 영상자료의 활용이 초등 학교아동의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2000.
- [6] 김정균, *비디오 자기모델링 기법과 적용*, 국립특수교육원 연구보고서, 2004.

전 병 호(Byeong-Ho Jeon)

종신회원



- 1983년 2월 :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 1995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영상광정보공학부 교수
 - 2005년 5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영상미디어연구센터 소장
- <관심분야> : 방송영상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영상

저 자 소 개

김 성 현(Sung-Hyun Kim)

준회원



- 1987년 2월 : 영남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 2007년 8월 : 공주대학교 영상교육학(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특수교육, 영상매체교육